

# 컵떡볶이·생들기름... 농촌 6차산업화 '활기'

### 전남 7곳 등 전국 50개 6차산업 경영체 매출 2년새 27% ↑ 익산 떡반장 미국시장 진출·양평 마을기업 지난해 9억 매출

식사를 면치 못하던 농촌지역이 6차산업화로 다시 활력을 찾는 분위기다. 특히,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작물인 식량작물의 6차산업화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5일 정부의 현장기술지원 받은 식량자원 6차산업화 경영체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6차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물 제조·가공 등 2차산업과 유통·판매, 문화·관광 서비스 등 3차산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식량작물 6차산업 경영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품종 보급부터 재배·가공기술, 상품 개발과 애로사항 청취, 해외 현지선도 조사까지 기술 등을 지원했다.

지난 2014년부터 벼, 잡곡, 맥류, 두류, 서류, 유지류 등 품목별로 육성을 시작했으며, 올해 영광 '군남농업협동조합'과 구례 '광의면우리밀공장', 해남 '불두막식품영농조합법인' 등 전남지역 7개를 포함해 전국에 50개 6차산업 경영체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기준으로 식량작물 6차산업 경영체의 매출액은 2015년에 비해 26.7% 증가했으며, 일자리도 183명이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익산 '떡반장' 컵 떡볶이

농업회사법인 (주)푸르메 FS는 익산지역 쌀로 만든 '떡반장 컵 떡볶이' 12박스를 이달, 미국 산호세 지역에 수출하며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식량원과 농과원은 가공 떡 수분율을 측정하고 컵떡자 가열시 떡 터짐을 방지하는 등의 기술을 지원한 바 있다.

에버블루협동조합은 생들기름을 제조해 지난해 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식량원은 가공적성(착유용·가우용)에 따른 품종 차별화 전략을 제안하고 고품질 생들기름 생산을 위한 작유 및 거름 방법을 교육했다.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 6차산업 경영체 중 25곳의 우수 경영체를 선정해 성공 사례집을 발간, 농업 관련 단체와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김부성 과장은 "식량자원의 6차산업화는 우리 식량 작물을 살리는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기술 지원을 통해 6차산업 경영체가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6차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전국 1233명이다. 이중 전남 지역 인증사업자는 174명으로 전복 197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

경기도 양평군의 마을기업인 에버그린·/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직업분류 11년만에 개편

### 연구·공학기술 신설 크게 10가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 직업분류가 내년부터 개편된다. 연구직과 공학기술직이 대분류에 신설되고, 보건·의료직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승격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보 활용과 연계를 위한 기준 분류 체계인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를 개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미국직업분류(SOC)를 모델로 개발된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취업알선 서비스, 노동력 수급 통계 작성 등에 사용되며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는 기초가 된다. 2002년 제정된 이후 2003년과 2005, 2007년에 3차례 개설했다.

11년 만에 개편된 내년 직업분류는 대분류 10개, 중분류 35개, 소분류 136개, 세분류 450개로 나뉜다.

시대 변화에 따라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이 대분류 항목으로 신설됐고, '보건·의료직'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변경했다. 중분류 기준은 노동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부문을 신설 또는 분할했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과학연구직, 자연·생명과학연구직 등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5개 직업이 중분류에 새로 포함됐고,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직'이 신설됐다. 기존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은 '미용·예식서비스직', '여행·숙박·오락서비스직',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으로 분할됐다.

세분류 항목은 '데이터 전문가',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등 최근의 직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신설 또는 개정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인생 사진"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주)광주신세계를 방문한 고객들이 1층 문화광장에 설치된 트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중소 호감도 51.4점... 20·30대 기피

### 중기중앙회 인식조사... 임금·근로시간 등 근무환경 최저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국민의 중소기업 호감도는 낙제점인 51점에 불과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전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인식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자아실현, 사회적 자유, 안정성, 성장성, 근로조건 등

5가지 항목에서 국민이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호감도를 보이는지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종합적인 이미지 호감도는 51.4점으로 대기업(71.5점)보다 20.1점이 낮았다. 중소기업 호감도 점수는 지난해(54.0점)와 비교해서도 2.6점 내려갔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중소기업 호감도는 47점에 불과해 가장 높은 60대 이상(57.5점)보다 10점가량 낮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처럼 청년들의 호감도가 낮아 중소기업 일자리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5개 중소기업 세부항목별 호감도에서는 성장성이 5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지위(54.0점), 자아실현 가능성(51.8점), 안정성(49.1점), 근로조건(46.8점) 등 순이다. 임금수준, 근로시간, 작업환경, 복리후생 환경 등을 포함하는 근로조건은 지난해 조사(49.0점)에 이어 올해도 5개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나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40.1%가 급여수준을 꼽았다.

## 증시 활황 신흥 주식갑부 76명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4조7427억

### 방준혁 넷마블 이사 3조7935억

올해 증시호황에 회사 상장으로 수백억원대 자산가가 된 '신흥 주식부호들'이 대거 탄생했다. 주로 바이오와 게임업체 주주들로 상장에 따른 주식 평가액은 최대 수조원대까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2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해 기업 신규 상장(신라젠 포함)으로 100억원 이상 주식 평가액을 보유하게 된 주식부자 수는 76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대박이 난 부호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으로 상장 주식 자산 규모가 22일 기준 4조 7427억원에 달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7월 2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 계열 상장사 중 유일하게 이 종목 지분 36.18%만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이사(1945억원)와 박성훈 에스디생명과학 대표이사(1695억원), 정관호 야스 대표이사(1490억원) 등 신흥 기업인도 회사의 증시 상장으로 1000억원대 주식부호에 이름을 올렸다.

위의 부를 거머쥐게 됐다. 김 의장은 게임업체 펠어비스의 코스닥 시장 상장 덕분에 1조598억원의 상장 주식 부자에 올랐다. 펠어비스는 9월 14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김 의장이 보유한 펠어비스 주식자산의 가치는 상장일(4659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김 의장이 2010년 동료들과 창업한 게임 MMORPG '검은사막' 등 흥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회사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순위 6위에 올랐다.

작년 12월 초 신라젠이 상장하면서 문은상 대표이사도 4220억원 규모의 상장 주식자산을 갖게 됐다. 신라젠은 지난해 12월 6일 상장해 올해 세 함암 바이러스티치제 개발과 '팩사백'의 글로벌 3상 순환 등 호재로 주가가 저점 8900원에 서 고점 15만2300원까지 뛰었다가 22일 8만1000원에 마쳤다.

정인용 씨티케이코스메틱스 대표이사(1945억원)와 박성훈 에스디생명과학 대표이사(1695억원), 정관호 야스 대표이사(1490억원) 등 신흥 기업인도 회사의 증시 상장으로 1000억원대 주식부호에 이름을 올렸다.

## "리스료 1회 연체에 서비스 중단은 부당"

### 공정위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 약관 심사...시정 요청

리스 차량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신용카드사의 약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의 여신전문 금융약관 838건을 심사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이를 심사해 약관별을 위반하는 점을 시정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월 리스료를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사전통지 없이 차량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계약해지 절차를 거쳐 사전통지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나 부품 교체 여부에 따라 최초 소비자가격의 1~7%의 사고 감가율을 적용해 돈을 내도록 하는 리스차 약관도 부당하다고 봤다.

차 가격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 산정해 고객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는 불리한 조항도 문제라고 봤다.

리스 이용자가 해당 카드회사와 하는 현재와 미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채권을 담보하도록 규정하는 약관도 공정위는 문제라고 봤다.

답보되는 채권은 해당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밖에 약관을 변경할 때 애플리케이션(앱) 푸시를 통해 통지한다고 규정 한 부분도 문제라고 봤다.

공정위는 할부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계약을 할 때 채무이행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가입을 요구하는데, 이때 고객의 보험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약관도 발견해 시정을 요청했다.

대출신청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할부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용어 사용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불공정약관을 바로잡아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 잔 엔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사용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특허번호: 10-0952035호, 10-1097764호, 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